

2015년 경찰 1차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광개토한국사 배담덕(김재규 경찰학원)

1. 단원별 출제 빈도

단원	출제 문제수	문제의 내용
I. 한국사 서론		
II. 선사~초기국가	2문제	청동시 시대(하), 초기국가의 풍습(하)
III. 고대사	5문제	
1. 정치사		삼국항쟁사(하), 밭해사(하)
2. 경제사		민정문서(하)
3. 사회사		골품제(하)
4. 문화사		일본 교류사(하)
IV. 고려사	2문제	
1. 정치사		
2. 경제사		
3. 사회사		
4. 문화사		고려 불교사(중), 고려의 도자기·불상·건축(중)
V. 조선사	5문제	
1. 정치사		세조의 업적 고르기(하)
2. 경제사		
3. 사회사		
4. 문화사		성리학의 흐름(중), 실학(상), 전기의 과학기술(중), 조선 후기의 지도와 역사서(중)
VI. 근대사	2문제	동학농민운동(중), 신민회(하)
VII. 일제시대사	2문제	무장독립군의 활동과 기타 사건 순서고르기(중), 일제시대 역사연구(하)
VIII. 현대사	2문제	6.25전쟁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순서고르기(상), 통일정책(중)

2. 문제 배분과 총평

① 문제 배분

- ㄱ. 전근대사가 14문제, 근현대사가 6문제로 전형적인 7:3 구조로 출제되었다.
- ㄴ. 경찰직의 특징인 고대사가 많이 나오고 고려사가 적게 나오는 전형적 구조였다. 전근대사 파트에서 문화사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정치사의 비중이 적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② 총평

- ㄱ. 표에서 제시한 난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반 정도인 10 문제가 정답이 보이는 쉬운 하급 문제였다. 두 문제를 제외하고 8문제는 중급 난이도 문제이므로 당연히 80점대는 무조건 맞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 ㄴ.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모두 고르기 유형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활동을 물어보는 13번 문제였다. 특히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중앙 행정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고, 목민심서가 지방 행정의 개혁을 주장하는 저서임을 고르는 문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근현대사 19번 문제에서 향토예비군의 설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까다로웠으나, 6.25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았다면 정답은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경찰 1차)

1. 청동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 ②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잔무늬 거울은 거친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 ③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 ④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정답: ② / 난이도 하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형태가 변하여 갔던 것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된 철기 시대에 해당된다.

■ 광개토한국사 1권 31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2. 다음 보기 (가)~(라)에 해당하는 나라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
| (나)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으며,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 (다)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고, 특산물로는 단궁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
| (라)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으며,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

- ① (가) –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
- ② (나) –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 ③ (다) –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 ④ (라) –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가)는 압록강 상류의 출본에서 건국되었다가 2대왕인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했던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어물과 소금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가족공동무덤으로 유명했던 옥저에 대한 설명이다. (다)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로 유명했던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12월에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열렸고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던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해설〉

- ① 부여, ② 삼한, ③ 동예, ④ 고구려의 풍습이다.

■ 광개토한국사 1권 40쪽~49쪽 수록

(2015년 경찰 1차)

3.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 ②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③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 ④ 노리사치계는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①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다. ② 6세기 후반 영양왕 때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에 건너가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④ 6세기 중반 성왕 때 노리사치계는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해 최초로 불교를 전하였다.

〈문제해설〉

③ 통일 신라 시대에 발달했던 원효와 의상 등의 불교 문화와 강수와 설총 등의 유교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하쿠호(白鳳, 백봉)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아스카 문화는 삼국시대 문화가 영향을 미쳐서 성립된 것임을 주의하자.

■ 광개토한국사 1권 151~153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4.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기록된 4개 촌은 호구 43개에 총인구는 노비 25명을 포함하여 442명(남 194, 여 248)이며, 소 53마리, 말 61마리, 뽕나무 4,249그루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① 통일 신라 때의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②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였다.
- ③ 토착 세력인 촌주가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하였다.
- ④ 1933년 일본 도다이 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되었다.

정답: ② / 난이도 하

제시문은 일본 도다이사(東大寺)의 쇼소인(正倉院)에서 1933년 발견된 민정문서이다. 9세기 초반 현덕왕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의 경제 상황이 기록되었다. 촌주는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세·공물·부역 등을 징수하여 바쳤다. 이 민정문서는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제해설〉

② 민정문서에는 토지의 면적과 종류(연수유전답, 촌주위답, 관모전답, 내시령답, 마전)와 인구 관련 정보(나이에 따라 6등급, 호별 인구수에 따라 9등급) 및 기타 생산 자원(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소와 말) 등을 기록하였다.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는 기록되지 않았다.

■ 광개토한국사 1권 101~102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5. 다음 보기의 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아찬까지였다.
-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는 비색 공복(公服)은 입을 수 있었으나, 자색 공복(公服)은 입을 수 없었다.

- ① 주로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하였다.
- ② 신라 말기에 이 출신이었던 일부 당(唐) 유학생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 ③ 신라 중대에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 ④ 강수, 설총, 최치원이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신라의 골품제도에 의하면 6두품 세력은 관등 승진이 6관등인 아찬까지였고, 비색의 공복을 입을 수 있는데 반해 자색 공복은 입을 수 없었다. 6두품 세력은 신라 중대에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강수와 설총이 대표적). 또한 신라 말기에 6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들은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최치원이 대표적).

〈문제해설〉

- ① 진골 귀족들은 집사부의 시중, 각 부서의 장관인령(令), 중앙의 장군직 등의 요직을 독점하였다.
- 광개토한국사 1권 114~115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6.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해의 주민 중 다수는 고구려계 사람들이며, 이들 중의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 ②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하였다.
- ③ 발해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은 이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④ 발해는 통일 신라와 경쟁의식을 가져 국제무대에서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때때로 사신을 파견하여 우의를 다졌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② 발해의 마지막 수도였던 상경성은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계획도시로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되었다(주작대로는 명칭이 동일). ③ 8세기 중후반 발해 문왕 때에는 당과의 대립 관계를 해소하고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당은 신라를 통해 발해를 견제하려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양국은 기본적으로 대립·경쟁 관계였다(발해와 신라 사신간에 쟁장 사건, 빈공과의 수석 자리를 둘러싼 등 제서열 사건이 대표적). 그러나 제한적이었지만 신라도를 통해 사신과 물자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문제해설〉

- ① 발해 주민 중의 다수는 고구려계가 아니라 말갈계로 구성되며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하였다.
- 광개토한국사 1권 85~87쪽, 118쪽, 148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7. 삼국시대의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 소수림왕은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등을 통해 지방의 부족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 ②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③ 백제 무령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④ 백제 성왕은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① 4세기 후반 고구려 소수림왕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를 통해 내정을 개혁하였다. ② 6세기 초반 신라 지증왕은 우산국 복속, 중국식 왕호 사용(마립간→왕), 순장 금지령, 우경 장려, 동시 설치, 신라 국호의 사용 등이 대표적 업적이다. ③ 6세기 초중반의 백제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고 사비로 천도한 후, 22부·5부·5방의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문제해설〉

④ 6세기 초반 백제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고 남조의 양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 538년 사비(부여)로 천도한 국왕은 성왕이다.

■ 광개토한국사 1권 58~64쪽 수록

(2015년 경찰 1차)

8.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2세기 중엽에는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도자기에 활용되었다.
- ②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과는 달리,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 ③ 상감 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제작 기법이 퇴조하였다.
- ④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정답: ② / 난이도 중

① 12세기 중엽 무렵 도자기 그릇 표면을 파낸 자리에 백토·흑토를 메워 무늬를 내는 상감 기법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 ③ 상감 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분청사기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퇴조해 갔다. ④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문제해설〉

② 신라의 균형미를 계승한 불상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거대 불상이다.

■ 광개토한국사 1권 258쪽, 261쪽, 262쪽 수록

(2015년 경찰 1차)

9.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천은 대립상태에 있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먼저 선종의 여러 종파를 종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열어 교종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 ②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나, 승과는 두지 않았다.
- ③ 지눌과 혜심의 활동은 교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 ④ 지눌의 뒤를 이은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④ 지눌의 뒤를 이어 수선사의 2대 사주(社主)가 되었던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문제해설〉

- ① 의천은 먼저 교종 종파인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즉 의천은 선종의 여러 종파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교종의 여러 종파를 통합한 후,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것이다.
- ② 광종 때 쌍기의 견의로 과거제가 실시되었으며, 승과를 실시하여 합격한 승려에게 법계를 주어 승려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 ③ 고려 무신집권기에 최충현과 최우는 지눌과 혜심으로 이어지는 선종(조계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광개토한국사 1권 243~246쪽 수록

(2015년 경찰 1차)

10. 조선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종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 ② 계미자, 갑인자 등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가 만들어졌고, 세조 때에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속도도 빨라졌다.
- ③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였다.
- ④ 『동국병감』, 『병장도설』을 간행하여 군사 훈련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③ 조선시대 세조 때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하였다(1467, 양성지와 정척 등이 만든 동국지도에 활용)

〈문제해설〉

- ①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종이 아니라 태조 때 만들어졌다.
- ② 태종 때 주자소의 설치와 더불어 계미자가 만들어졌고, 세종(세조가 아님) 때에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과 더불어 갑인자가 만들어졌다.
- ④ 조선 문종 때 김종서의 주도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간행하였고, 「병장도설」이 편찬되어 군사 훈련의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 광개토한국사 1권 429쪽, 442쪽, 447쪽

(2015년 경찰 1차)

11. 밑줄 친 ‘내’ 가 재위한 시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왕이 어려서 무릇 조치하는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 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종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한다.

- ①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등 왕권이 강화되었다.
- ②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 ③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고 반포하였다.
- ④ 이종무가 병사 1만 7천명을 이끌고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정답: ② / 난이도 하

제시문에서 상왕은 단종이고, 밑줄친 나는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한 세조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세조 때 관리들에게 지급할 과전이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 한해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문제해설〉

- ① 고려 광종, ③ 조선 성종, ④ 조선 세종의 업적이다.

■ 광개토한국사 1권 274쪽

(2015년 경찰 1차)

12.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경덕은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 ② 이황은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 ③ 이이는 『주자서절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④ 이언적은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16세기 성리학자인 이언적은 성리학의 현실적 과제가 도덕성의 이론적 확보라는 점을 직시하여 이(理)를 근본으로 하는 성리학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이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해설〉

- ① 서경덕은 이(理)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 포용적이었다.
- ② 『성학집요』은 이황이 아니라 이이의 저서이다.
- ③ 『주자서절요』는 이이가 아니라 이황의 저서이다.

■ 광개토한국사 1권 406~408쪽

	이황(1501~1570)	이이(1536~1584)
출생	경상도 예안(호는 퇴계)	강릉→경기도 파주(호는 율곡)
학문적 경험	기대승과 4단 7정 논쟁	성훈과 4단 7정 논쟁
	주리론(1,000원권 지폐)	주기론(5,000원권 지폐)
	성학십도(군주 스스로 깨우쳐야)	성학집요(현명한 신하가 바꾸게 해야)
	주자서절요, 이학통록, 전습록변	동호문답, 격몽요결, 만언봉사소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제자들	예안향약 주도	해주향약 주도
	영남학파 형성(남인)/김성일, 유성룡 등	기호학파 형성(서인) / 조현, 김장생 등

(2015년 경찰 1차)

13. 다음 보기 중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이익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 정약용은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 Ⓒ 유형원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균전론(均田論)을 주장하였다.
- Ⓓ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유수원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저술하여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고,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 난이도 상

▣ 중상학파 실학자인 유수원은 문답체 형식의 「우서」에서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면,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가 가능해져 상공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리한 토지개혁 보다는 상업적 경영과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 경영 방식을 지향하였다. Ⓛ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조선 후기 백과사전류의 선구적인 저서로 천문·지리·제국·관직·문장·기예·식물 등 25개의 부(部)로 분류하여 서술하여 문화인식의 폭을 넓혔다. 또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최초의 역사지리지로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문제해설〉

- Ⓐ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유형원의 균전론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 정약용이 저술한 『경세유표』는 중앙 행정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지방 행정의 개혁과 목민관(수령)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 저서는 『목민심서』이다.
- Ⓒ 한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이익의 한전론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박제가의 주장이다.

■ 광개토한국사 1권 416~424쪽, 특히 정약용의 저서 부분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419쪽).

(2015년 경찰 1차)

14. 조선 후기에는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시하였다.
- ②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 ③ 이궁익은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려실기술』을 편찬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 ④ 안정복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

정답: ② / 난이도 중

18세기 후반 이종휘가 저술한 『동사』는 본기(단군, 기자, 삼한, 후조선), 세가(부여, 발해, 가야),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역사서이다. 단군 - 부여 - 고구려의 흐름에 중점을 두면서, 기자 - 마한의 흐름이 고구려에 계승되는 것으로 체계화하여, 고구려를 단군의 혈통과 기자의 문화를 동시에 계승한 국가로 특히 강조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사만을 다룬 최초의 사서로서,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밝혀 우리 민족사의 범주로 끌어들였고, 신라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해설〉

- ①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이다.
- ③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우리측 자료뿐만 아니라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힌 역사서는 한치윤이 저술한 『해동역사』이다.
- ④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강목체로 저술한 사서이고,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만을 다룬 역사서는 이궁익의 『연려실기술』임을 주의해야 한다.

■ 광개토한국사 1권 437~441쪽

(2015년 경찰 1차)

15. 다음 민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야 새야 녹두새야	새야 새야 팔왕(八王)새야
웃녁 새야 아랫녁 새야	네 무엇하러 나왔느냐
전주 고부 녹두새야	솔잎 댓잎이 푸릇푸릇
함박 쪽박 열나무 딱딱 후여	하절인가 하였더니
새야 새야 녹두새야	백설이 펄펄 흘날리니
녹두밭에 앉지마라	저 강 건너 청송 녹죽이 날 속인다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 ①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중 집회를 열고,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형의 원을 풀고자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다.
- ② 고부 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과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 ③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우금치 등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복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 ④ 폐정 개혁 12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제시문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기리는 민요이다. 제시문에서 전주와 고부라는 표현을 통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자료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제시문에서 ‘팔왕(八王)새’라는 표현은 전봉준의 성(姓)인 전(全) 씨의 파자임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④ 전주화약이 체결된 직후, 농민군들은 전라도 53개 고을에 자치적 민정 기구로서 집강소를 설치하여,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운 폐정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

〈문제해설〉

- ① 교조신원운동은 동학의 1대 교주인 최제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종교운동이었다.
- ② 단발령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 추진된 을미개혁의 내용이므로 틀리다.
- ③ 농민군들은 고부의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후, 더 많은 농민군들을 규합하기 위해 남하하던 중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에 전주성을 점령한 것이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 의해 패배하여 농민운동이 실패한 것이다.

■ 광개토한국사 2권, 41~45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16.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권 회복과 입헌군주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 ②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국외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실력 양성을 기도하였다.
- ③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 ④ 신민회의 국내 조직은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와해되었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1907년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밀결사 단체가 신민회이다. 신민회는 표면적으로는 실력양성 운동을 표방하였지만, 1909년 무렵부터는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를 수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신민회의 독립군 기지 건설 노력의 결과 3군데에서 무관학교가 수립되었다. 첫째로 만주 서간도 삼원보 지역의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 둘째로 북간도 왕청 지역에 동림 무관학교, 셋째로 연해주 지역의 밀산 무관학교가 대표적이다. 보통은 서간도 지역의 신흥무관학교만을 물어보는데,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에도 신민회 간부들의 노력으로 무관학교가 세워졌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신민회는 안악 사건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소위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문제해설〉

- ① 신민회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를 지향하였으므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 광개토한국사 2권. 79~80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17. 국학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순수 학술 연구 단체인 청구 학회가 조직되어 일제 식민 사학에 대항하며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에 힘썼다.
- ② 박은식은 『한국 통사』, 『한국 독립 운동지역사』, 『5000년간 조선의 얼』을 저술하여 일제에 의한 한국 고대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반박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부각시켰다.
- ③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천도교는 중광단과 북로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 ④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사회 경제사학이 백남운 등에 의해 1930년대에 대두되었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강조했던 사회 경제 사학자인 백남운은 우리 역사도 서양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대 노예제 사회 → 중세 봉건 사회 →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사에는 봉건 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는 「조선사회경제사」(1933), 「조선봉건사회사」(1937) 등이다.

〈문제해설〉

- ① 청구학회는 식민사학을 주도했던 조선사편수회와 경성 제국 대학 교수가 중심이 되어 1926년에 결성된 단체이므로 틀리다.
- ② 정인보는 조선 역사 연구의 근본을 ‘단군조 이래 5,000년간 맥맥히 흘러온 얼’에서 찾고 조선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했다.
- ③ 중광단과 북로군정서는 대종교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무장단체였다.

■ 광개토한국사 2권. 194~201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18.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 우리 동포를 학살하였다.
- Ⓑ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의 독립 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열었다.
- Ⓓ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이른바 미쓰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① / 난이도 중

Ⓐ 간도 참변(1920. 10) → Ⓑ 국민 대표 회의 개최(1923. 1) → Ⓒ 미쓰야 협정(1925. 7)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11)

■ 광개토한국사 2권, 145쪽, 154~155쪽, 186쪽에 수록

(2015년 경찰 1차)

19.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 사사오입 개헌
- Ⓒ 휴전 협정 조인
- Ⓓ 발췌 개헌
- Ⓔ 향토 예비군 창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 난이도 상

Ⓓ 발췌 개헌(1952) → Ⓑ 휴전 협정 조인(1953. 7)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 → Ⓒ 사사오입 개헌(1954) → Ⓔ 향토 예비군 창설(1968)

■ 광개토한국사 2권 258쪽에 향토예비군 창설. 국민교육현장이 발표된 연도가 1968년이라 밝히고 있다. 향토예비군제가 출제되면서 문제가 어려워졌다.

(2015년 경찰 1차)

20. 다음 보기는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 ② 19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 ③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 ④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정답: ④ / 난이도 중

제시문에서 ‘우리 민족끼리’ ,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라는 표현을 통해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임을 파악해야 한다. 보통은 6.15 공동 선언에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라는 표현이 주로 나오지만 앞에서 설명한 표현들도 꼭 외워둬야 할 표현들임을 수업시간에 강조하였다.

■ 광개토한국사 2권 283쪽 6.15 공동선언 사료